東亞日報

定價 一個月 六十錢 ... 廣告料 ...
發行所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編輯兼發行人 ... 印刷人 ...
電話 ...

後繼內閣에 對한 高橋氏의 態度

無誠意、無抱負

高橋首相은 內閣不統一의 理由로 辭職을 乞하는 同時에 東京來電에 依하건대 그 後繼者에 對하야는 敢히 責任을 負하고 奏請할만한 適宜한 者가 無함으로 何等 言及한 바이 無하얏다 하는도다 此電報에 接하고 吾人은 一種의 失望을 感하는 同時에 高橋氏가 亦是 日本政界에 對하야 何等 誠意와 何等 抱負가 無한 것을 知得하얏나니 吾人은 同氏가 內閣組織의 大命을 拜하얏슬 時에 若同氏가 印綬를 解하는 境遇에는 그 反對黨首領의게 對하야 內閣組織의 大命降下를 奏請할 것갓흐면 이로부터 日本政治는 常道를 得하게 되리라 하고 그 所謂 少壯政治家起用에 多少의 希望을 囑하얏더니 今에 見하면 吾人의 同氏에 對한 評價가 太過한 것을 覺하겟도다 惟컨대 同氏가 後繼內閣組織者에 對하야 奏請함이 無한 것은 그 適宜한 者를 發見치 못한 故이라 하나 然則 그 適宜한 者라 見함은 何者이며 또 그 適宜者라 하야 大命이 下하는 境遇에 그 任命에 對한 責任은 果然 何人이 此를 負할 것인가 高橋氏의 意見에 依하면 그 適任者의 發見은 大權의 作用이라 할 것이며 且 그 任命은 被任者의 責任이라 할 것이나 그러나 此는 決局 責任의 所歸를 曖昧케 하는 者이니 大槪 適任者의 發見이 大權의 作用이라 함은 神聖不可侵의 天皇에 對하야 그 責任을 歸코자 하는 矛盾이며 그 任用適否에 對한 責任을 被任者에 歸코자 함은 原因結果를 顚倒하는 自家撞着이라 或은 云하되 適任者의 發見은 元老의 所任이오 따라 그 任命에 對한 責任은 元老가 負할 것이라 하는 者 有하나 그러나 此는 日本의 憲法 그 自體를 了解치 못하는 者일 뿐 아니라 果然 如此할진대 그 所謂 元老라 하는 것은 日本憲政에 必然且必要物이 될지니 이 엇지 日本의 憲政을 爲하야 日本의 前途를 爲하야 恥辱이 아니리오 그러나 後繼者奏請은 決코 容易한 것이 아니며 또 輕々한 責任이 아니라 國務中의 가장 重大한 部分의 하나이라 하야도 可하나니 大槪 國家運命이 그 內閣組織의 適否如何에 關함이 深切한 外닭이라 然則 適宜하다고 認定치 못하는 境遇에는 그 後繼者에 對하야 敢히 奏請치 못하는 것은 一面으로 觀察하면 勿論 無意味한 回避라 하지 못할지나 그러나 이제 高橋氏의 心思를 忖度하면 兩個思想이 그 裏面에 伏在함을 可히 知할지니 一은 自黨에 有利한 中間內閣의 可能을 信함이오 그 二는 自己自身의 再任이 그것이라 萬一 政黨을 基礎치 아니한 中間內閣이 憲政의 常道로 觀察하야 到底히 不可하며 且 自家年來의 主張인 政黨政治主義에 比照하야 그 成立을 到底히 許키 不能한 自覺이 存할 것 갓흐면 此에 後繼內閣에 對하야 曖昧한 態度를 敢히 取치 못할지며 또한 萬若 그 스스로 再任을 期하는 自信이 無할 것갓흐면 이에 不可不 그 後繼者는 反對黨首領을 奏請하는 外에 道理가 無하니 此로써 觀察하면 同氏가 適任者의 發見이 容易치 아니하다 하야 後繼者의 奏請을 拒否함은 要컨대 國家의 難局을 念하야 慎重한 態度를 取한 것이 아니라 그 實은 日本憲政發達에 對한 誠意와 何等 抱負가 無함을 表明한 것이로다 이 엇지 單히 同氏를 爲하야 歎惜할 바이리오 眞實로 日本의 前途를 爲하야 吾人은 哀惜하노라

近來 日本政權의 受授를 觀察하건대 何等 主義主張에 依하야 向背를 定함이 無하고 따라 民意民論에 依함도 아니니 國會에 多數를 占領함도 아니오 오즉 政權의 把持를 機會하야 利用하며 利權을 爲하야 名으로써 的하는 政黨을 基礎하고 內閣을 組織하는 境遇에도 오즉 그 黨派의 存立의 唯一한 根本인 政權을 掌握함에 是急하고 其他에 何等 顧慮하는 바이 無하니 이럼으로 그 內閣의 任을 解하는 境遇에도 오즉 그 自黨에 有利한 候補者를 求하기 心中에 熱하는도다 大槪 反對黨의 首領이 立하는 日은 곳 自黨이 自滅하는 日이며 同時에 永遠히 政權으로부터 分離하는 日이라 政黨의 基礎가 되는 民意民論은 何故오 簡短하니 政黨主張이 아니며 主義主張이 아니오 私利를 爲하는 『政權의 把持』인 外닭이로다 此意味로 日本의 前途를 爲하야 日本의 政界에 一片同情이 不無하나 高橋氏의 苦衷이 罪惡이 되기를 吾人은 希望하노라

歐洲思想의 由來 (七六)

第六章 最近代思潮 (續)

八、世紀末哲學

(ㄴ) 民衆主義에 對한 反抗

貴族階級에 出生한 스토아는 所謂 貴族階級의 暴狀無力함에 憤하야 바로 平民階級의 赤裸々한 自然의 生活을 憧憬함으로 理想을 삼앗스나 貴族階級 中에 投하야 그곳에서 天眞爛熳한 眞人生을 見出코자 하얏스니 換言하면 腐敗한 少數貴族社會를 乘하고 多數民衆의 中에 歸依하얏나니 이 點에 잇서는 스토아는 民衆의 理想을 發見코자 하는 民衆主義者이라 할지나 그러나 스토아는 眞人生을 民衆의 自治에 求하얏슨즉 民衆은 目的이라 平民의 精神中에 眞個文化의 力으로 因하야 背酷을 受하지 아니하는 眞生活이 潛在에 잇다고 思惟하얏스나 스토아는 信하얏다 그러나 이에 反하야 此點에 在하야는 全히 反對되는 者이 잇스니 新世紀에 廣知함과 如히 니체는 少數天才主義의 主張者이오 多數民衆主義에 對하야 激烈한 反對者이니 何故로 彼는 民衆主義에 反對하는지 吾人은 몬저 深히 此點에 致意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리니 彼는 天才主義를 謳歌함이 안이오 多數에 對한 少數를 謳歌하며 漫然히 多數에 反對한 것이 아니라 彼는 先天的으로 高貴한 人格의 謳歌者이오 追求者이니 此點에 在하야는 彼는 어데까지 嚴正한 意味의 理想主義者이오 또로만티시스트이라 此와 如한 立脚地에 立한 니이체의 眼中에는 그 當代의 民衆的 傾向은 甚히 暴狀野鄙를 極한 것이나 高尙한 人格의 發展에는 甚히 危險한 것으로 映하니라

이미 前段에 槪說함과 如히 社會主義的 運動은 十九世紀 初로부터 徐々히 發達하얏스나 特히 獨逸에 在하야는 同世紀 中葉으로부터 官僚主義에 對한 反抗運動이 더욱 氣勢를 振하야 千八百七八十年頃에 至하야 獨逸社會黨은 旭日의 勢를 示하는 隆運에 達하니라 그러나 此隆運에 達한 民衆主義的 運動에 對하야 漸々 一種의 反抗運動이 起하니 官僚主義的 頑固와는 스사로 種類를 異한 一種의 反抗運動이 起하야 그러한 民衆運動에 對하야 또한 民衆의 勢力이 澎湃함에 對하야 乃至 傾向의 民衆運動이 起할 것이 아닌가 此는 必然的으로 起할 것이오 從하야 此에 對하야도 本來를 言하면 此等의 反動은 少數識者를 區別코자 하는 傾向이 是라 一種의 反抗運動이 起하야스니 그로 一種의 反抗運動이 起하야 民衆으로부터 少數識者의 自己를 區別코자 하는 傾向이 是라 佛蘭西革命後 猝然히 民衆運動이 勃興한 際에 민衆의 少數識者中에는 追從하는 者가 多하얏스니 卽 自己를 高處에 置하야 世俗을 白眼視하고 高尙하게 自己를 守하야 世俗을 不肯하고 도리혀 名譽가 有한 孤獨을 守하얏스니 特히 文藝家이나 思想家에 此種類의 傾向이 顯著하얏스니 가령 當時 有名한 詩人文學者 스탄달, 보드렐, 푸로벨 等이 皆是이라 彼等은 單히 衆愚로부터 自己를 分離코자 試하얏슬 뿐 아니라 積極的으로 此等衆愚에 對한 푸로벨과 如한 이는 그 平凡한 사람을 深刻한 侮蔑의 感을 抱하얏스며 就中 스탄달은 니체의 先驅者라고 外지 見稱하야 深히 俗惡한 衆愚를 憎惡하며 또 特히 精神的 貴族趣味를 備하야 貴族的 强者는 賤劣한 多數衆愚를 指導하고 統率할 義務가 有함으로 外지 생각하얏스며 少數天才에 對한 多數衆愚의 問題에는 無限한 力은 無하니 萬事實이라 이 少數天才를 惡하고 衆愚의 力은 無限하며 暗昧하나 少數의 天才는 此에 抗하야 尊貴한 지라 民衆의 力이 大하면 大할수록 社會는 더욱 俗惡化하야 그 天才는 이에 抗하야 永遠히 不知한다함이, 이 부르즈는 後에 英吉利의 스칼라일과 如히 此 少數者 對 多數民衆의 問題를 如何히 하야 解決하지 안이하면 안이될 重大問題이라 고 力說하얏스니 벌써 그 問題가 此 少數民衆의 問題이니 此問題는 極히 英國의 社會的 興論에 如何한 것이며 또 此에 對하야 如何한 것이라 하얏나니 ... 以上의 敍述로 因하야 니체가 何故로 民衆에 反對한지 그 意味가 大略 明白할지라 이 니체는 多數民衆을 到底히 濟度하지 못할 愚鈍한 民衆의 集團으로 생각하야 民衆을 敎育하야 그 文化의 程度를 高케 하고저 하는 것은 到底히 空想家의 妄信에 不過한 것이라 平等은 近代文明의 目標로 하나 本來를 言하면 人類의 天分은 甚히 不平等이니 識者가 無識者를 支配하고 强者가 弱者를 支配하는 것은 當然한 自然의 道理이니 無識者나 弱者는 元來 識者나 强者에 支配되고 統率되게 造成된 것이니 此에 自治를 許하고 自制를 與코저 함은 도리혀 彼等을 苦痛에 陷하게 하고 彼等의 存在와 平和를 攪亂하는 것에 不外한지라 이미 카라일이 假破함과 如히 今日外지 何世何時에 在하야도 社會를 指導하고 人生을 統率하야 新歷史를 與한 者는 항상 少數의 天才이니 少數의 天才가 無하얏스면 今日外지의 歷史的 進步는 全히 期望하지 못하얏슬지라 統率者와 被統率者가 有함으로 하야 비로소 治者와 被治者가 有하야 社會는 成立하는 것이라 統率者이나 治者 即 識者, 知者, 賢者는 항상 社會의 少數者이니 衆愚의 力으로써 此를 壓迫하면 社會生活은 마참내 破滅하고 말지라 極言하면 到底히 濟度할 餘地가 無한 衆愚는 少數偉人만이 人生에 大意味 되는지라 社會의 暗이 되고 光이 되는 것이니 從하야 社會는 衆愚를 有한 것이나 社會는 衆愚를 爲하야 存在한 것이 아이오 專히 少數偉人을 爲하야 存在한 것임으로도 생각할지라

『맑쓰』思想의 槪要 (二八)

李順鐸(抄譯)

第三章 資本主義的經濟組織의 批評(續)

第三節 剩餘價値說(續)

然則 資本家的 生産組織에 잇서는 貨物은 原則으로 그 價値대로 賣買되는 것이 아니니 旣히 屢々히 指摘한 바와 갓치 맑쓰의 所謂 價値와 實價格과를 同一視하야 非難攻擊하는 사람은 맑쓰의 論點은 市場價格에 잇지 안은다 그러고 資本主義的 經濟組織에 잇서는 貨物은 原則으로 맑쓰의 所謂 價値와 不一致한 價格으로 賣買가 되지 아니하고 剩餘價値는 이를 生産한 資本家만이 自己의 所有삼는 것이 아니오 이를 生産及販賣(即 貨物의 生産及販賣)하는데 參加한 總資本家가 그를 난호게 될 性이니라 貨物의 生産及販賣에 從事하는 各種의 資本家가 다른 資本家로부터 資本을 借入할 것 갓흐면 自己의 손에서 實現되는 剩餘價値의 一部分을 所謂 利子로 資本의 貸主에게 支拂치 아니치 못할지오 또한 엇던 地主에게서 土地를 借入할 것 갓흐면 彼는 自己의 손에 實現된 剩餘價値의 一部分을 地代라는 形式으로 그 地主에게 支拂치 아니치 못할지니 如斯히 生産過程에서 成立된 剩餘價値는 一切의 資本家에게 分配되게 되도다 그래서 그 分配된 剩餘價値와 그 元本인 資本과의 比例가 所謂 利潤率이니 年一割 年八分 等과 갓치 資本家의 利潤이란 것은 一定한 率로 表現되고 勞働者의 賃金은 年俸 割年俸分이라는 方法으로 表現이 되지 아니하니 그는 何故오 하면 資本家의 所得은 原則으로 그가 가지고 잇는 資本의 大小에 따라서 그 額이 限定되야 잇서서 即 만흔 資本을 가진 者는 一定한 率에 따라 그에 相當한 만흔 所得을 엇고 적은 資本을 가진 者는 또한 갓흔 率로 그에 따라서 적은 所得을 엇음에 不過할 따름이라 하노라

如此히 利潤이란 것은 原則으로 資本家的 生産組織에 잇서서는 資本家 資本의 大小에 따라서 一定한 資本은 이를 使用치 아니할수가 업시 不變資本으로 使用치 안는 것이 아니면 아니될 것이니 資本의 一部分이 使用되는데 이 部分의 資本은 도모지 增殖치 안는 것이오 勞働者를 雇用키 爲하야 投下한 資本은 可變資本이란 것이니 可變資本으로 若干의 剩餘價値를 生産한다는 것은 그러나 이 剩餘價値를 利用한다는 것 곳 投下한 外닭이라 即 定한 資本을 投下한 것은 剩餘價値를 生産한 原因이로다 그 外닭에 이 可變資本이란 것이 맑쓰의 總體의 資本에 對하야 勞働者를 雇用키 爲하야 이 可變資本의 比例는 使用하는 貨物의 種類에 依하야 生産되는 貨物의 種類에 依하야 投下하는 資本額과의 比例는 甚히 相違하나니 例컨대 製造業은 全體의 比例로 말하면 더만흔 資本은 機械原料等에 投下하는데 造船業이나 紡績業이나 製鐵業은 投下하는 資本을 機械原料等에 投下하는 보다 더만흔 資本에 可變資本과 不變資本의 比例가 甚히 相違함으로 그 生産하는 資本의 比例가 大할 뿐만 아니라 種類의 企業에는 可變資本의 比例가 大하고 또한 엇던 企業에는 不變資本의 比例가 大하야 그 結果 比較的 만흔 剩餘價値 即 利潤을 生하고 또한 比較的 小한 剩餘價値 即 利潤을 生하는 貨物의 種類를 달니함에 따라서 各種의 企業에 利潤率의 相違가 生하게 되도다 그러나 그러한 實際에는 各種의 企業에 利潤率이 大略 平均되는 傾向에 不拘하고 果然 如何한 理由에 基因되는 고하니 맑쓰의 說明에 依하면 그는 企業者間에 競爭이 되는 所致로다

北京에서 (四)

‖中國留學案內‖

梁海淸(寄)

가、學校狀況

(一)學校의 形便(續)

中國에 잇는 學校에 對하야 一々히 仔細한 말슴을 드리려면 끗이 업겟스나 우리와 關係가 만코 有名한 몃 學校만 들어 말하나이다

(一)國立北京大學校(北京) 中國新文化運動의 中心點인 學校는 光緖三十一年(距今二十五年前)에 創立으로 中國最初의 敎育總長이던 蔡元培氏가 現在校長이며 胡適之,陳獨秀,蔣夢麟,章行嚴,錢玄同,周作人,王星拱,陶孟和,李大釗,李守常 等 現代中國敎育界의 名士가 大部分 이 學校와 直接間接으로 關係가 잇스며 學生運動도 北方에서는 恒常 이 學校生徒가 中心이 되나이다 學校는 預科二年 本科四年 인데 哲學과 中國文學은 東洋第一이라는 評論이 잇고 其他史學 社會學等 精神科學은 모다 完全하다 할수잇스나 政治經濟法律갓흔 것은 不充分하고 工科醫科갓흔 것은 아직업나이다 더구나 入學이 甚難하니 正科에 入學하려면 中國中學卒業證이 必要하고 試驗이 甚 어려우며 漢文의 學力과 官話가 充分하여야 되겟습니다 이 學校를 卒業하려면 우리 中學校(舊制)卒業生으로는 十年은 豫定하여야 되겟나이다 또 聽講을 하려하더라도 英語가 能한 外에 官話 即 北京말을 充分하여야 되겟습니다 (二) 年은 準備하여야 되겟나이다 우리 同胞로 이 學校를 卒業한 이는 아직업스나 C君이 現在 本科三學年이며 選科 即 聽講生으로 우리 學生이 몃분 잇나이다

(二)香港大學校(香港) 北方學界의 中心이 北京大學이라 하면 香港大學은 南方學界의 中心이라고 할수잇스며 中國固有文化를 某礎로 한 研究의 中心點이 北京大學이라 하면 香港大學은 外來文化研究의 中心點이라 할수잇나이다 이 學校는 純全한 外國式이니 英人의 經營으로 男女共學制이며 그의 學科는 英米의 大學과 가튼데 英文學科가 잇는 것은 아마 東洋에 第一이겟나이다 但入學이 甚難하니 普通學校를 卒業한다던지 또는 英語의 學力이 普通會話와 參考書보기에는 조금도 不便이 업슬만 한 程度라야 되겟스며 또 學費가 大端한 것이 日本學校 以上의 費用이 드나이다 (三)金陵大學校(南京) 이 學校는 中國大學中 우리와 關係가 第一 집흔 學校이니 우리 同胞로 卒業한 이도 二三人되며 中學大學神學에는 恒常 우리 生徒가 업는 때가 아니나이다 南方에 잇는 各敎會의 聯合經營으로 神科農科는 中國에 有名하며 其他 學科와 設備가 完全하고 우리의 게 對한 同情도 만흔터인즉 入學도 比較的 容易하외다 (四)燕京大學校(北京) 北京에 잇는 各敎會 聯合經營으로 年前 協和醫文兩大學을 合하야 設立되얏스며 初創中임으로 아직 不完全한 點이 업슴은 아니나 入學도 比較的 容易하고 現在 大擴張을 計劃中인즉 우리의 工夫에는 適當하다고 하겟나이다 預科二年 本科四年이며 科는 三年이고 現在 우리 學生도 男校와 女校에 三四人이 잇나이다

開城滿月町六八一 材木販賣 建築請負 家具製造 漆器各種 三成商會 電話長一四番

六月五日부터 全部取換 每日晝夜二回開館 夏期特別 文藝名畫大會
◎ 獅子와 列車 三卷 유니바ー사루 고메데
◎ 專屬說明者 田中 白龍 主演 燃하는 圓盤 四卷 連續活劇 第七篇 第八篇 解說者 奧田秀水
◎ 活劇 西는 西 全五卷 유니바ー사루會社特作 原作 엠만라부로ー氏 監督 하리ー 하로ー氏 撮影 하리ー 主役 시리 ー 게리 ー氏 解說者 生駒天雷 南洲公利
◎ 屍의 輝 全五卷 原作 존 ー지 ー 스 이 오 리 ー 監督 라ー 베ー 스 ー 氏 撮影 라 ー 사 ー 氏 主役 ー 로데 ー 氏 解說者 石田旭花 牛駒天雷
特別普通入場料 階上六十錢 階下四十錢
洋劇專門 弁社直營 黃金館 電話二六三七番

疾病秘奧治療法 自他難病 痼疾急慢性 全治病苦人 速望來問 京城部染洞一五〇 電話二三二五 轉精光化門療院 院長 白樂璿 總務 鄭章鉉

◎文化生活家의 必要한 것?
複雜한 社會에 敏活한 萬年筆을 맛비맛비 쓰십시오
第一號 第二號 正十四金片付安全잉크止式 大特價 (二圓四十錢) (二圓)
第三號 第四號 第五號 正十四金片付安全操出式 K18金張輪付 大特價 (三圓五十錢) (四圓) (四圓八十錢)
第六號 第七號 正十四金片付安全잉크止式 止蓮蓬形 止太軸 大特價 (三圓六十錢) (七圓)
第八號 第九號 正十四金片付安全押出式 大特價 (三圓五十錢) (四圓)
共同購入으로 五個以上을 注文時는 一割引 提供함
眼鏡 萬年筆 星眼堂 京城鍾路二丁目 振替京城七八六一番
文化生活하시는 諸氏!!
世界良品 세ー라 萬年筆

義菴先生號

三百萬敎徒의 熱烈한 信仰과 二千萬民衆의 切實한 希望을 一身에 集中한 朝鮮民衆의 指導者 孫秉熙先生은 壬戌五月十九日로써 永遠無窮의 神秘晦示를 遺하고 最後一期의 崇高悲壯을 逐하얏도다 雄渾豪放한 그 相格, 天空海濶의 그 胸量, 春生秋殺의 그 判法, 風雲雷霆의 그 機變 ─ 진실로 天縱의 偉人이라 이제 本社에서 先生에 關한 一切를 거두어 還元紀念號를 發行하얏도다 六十年平生의 風雲을 짜하야 發揮된 先生의 偉格을 追慕하며 二千萬民族의 情熱과 合하야 發動된 先生의 心法을 紀念하는 뜨거운 뜻으로 우리가 다ー가치 이 冊한 形式을 備置하다하면 이얼마나 意味깁흔 일이리오 이에 우리는 先生의 大精神과 그 言行을 본밧고 또 紀念하기 爲하야 이 冊을 印刷實費로 天下兄弟에게 드립니이다 印刷實費 拾九錢 郵稅一錢

□先生의 一代記
一、幼年時代의 先生의 豪放 ─ 二、心機一轉의 先生의 新生 ─ 三、甲午의 革命과 先生의 奮戰 ─ 四、癸巳의 失敗와 甲辰의 更張 ─ 五、多感한 先生의 晩年 ─ 으로 成한 一篇의 偉人傳
□先生의 日常生活 □先生의 病狀日誌 □先生의 遺詩 □先生의 秘寶記
□先生의 還元에 對한 各方面의 感想
感化力이 豊富한 先生의 寬容性 ... 韓
民族의 精神化된 先生의 精靈 ... 朴
先生은 民衆的 一大偉人 ... 吳
政的으로서 師友된 珍奇事 ... 趙
先生의 圓滿性 ... 李
先生의 喪은 擧世의 同感 ... 李
先生은 一大偉傑 ... 玄
革命으로 起하야 革命으로 終 ... 鄭
始終一貫한 先生의 社會性 ... 吳
敎政雙全한 先生의 多角的 趣味 ... 大
外 二十一人의 속 임 엇 는 感想
右外 更히 八面으로 나란 先生의 肖像 二十八葉과 幾多의 餘錄이 잇슴니다

發行所 京城府慶雲洞八八 振替京城八〇六 天道敎會月報社

海牙會開催決定

海牙會議는豫定과如히六月二十六日에召集하기로決定하얏다더라(倫敦電)

海議와米佛主張

單히技術的專門家의發起로하자

佛國首相「포앙카레」氏는聯合國에覺書를送하야其態度를說明하얏슴에不拘하고海牙會議는豫定과如히六月二十六日召集될터이며米佛兩國은同會議를單히技術的專門家의發起로할을主張하며英國은「제노아」에서提出한覺書를撤回치아니하리라더라(巴里六日發)

英佛保障協定乎

保障協定은佛國首相「포앙카레」氏와英國首相「로이드쪼-지」氏와의間에再次審議될터인대佛國은右協定에關한交涉은「포앙카레」氏가讓히修正希望의旨를通告하던諸點에對하야早速히回答을得하기를欲한다는旨를傳하더라(巴里六日發)

歐洲波瀾再起兆

獨逸賠償金減額問題로

獨逸賠償金의減額을討議할本日의賠償委員會가突然히延期되얏슴으로僅々히鎭定된歐洲는再次波瀾을生함에至하얏는대右延期의原因은國際銀行家協會와聯合國政府와의間에對獨借款에關하야意見의相違가有한外타만은듯한바銀行家側은此以上巨額의借款을行함은不適當하다認한所以인듯한대又一方으로賠償金에對한最大의權利者인佛國에서는他에相當한代償이업시는賠償金의減少에同意치아니할模樣이라더라(巴里六日發)

新賠償協定成立

聯合國賠償委員會로부터獨逸의新約束을承認할旨의通告가當地에到着하얏는대從하야賠償問題에關한難局은除去되얏다더라(伯林七日發)

英政界形勢危急

今七日은政治上의形勢危急할과愛蘭問題가亦然解決치못한所以로英首相은「웰-쓰」에赴하야休養할事를斷然中止하얏는대聯合內閣을保持할確信을損하얏다더라(倫敦七日發)

英軍隊의襲擊事件

各派의激烈한意見衝突

「페뇌 巳」에在한英國軍隊의襲擊事件은再次當地各派間에激烈한意見의衝突을惹起하얏는대保守黨機關新聞紙는英國軍隊의策動은叛徒의게對한英國政府의懲戒라하야慫慂하나自由黨은「今回의事件으로부터新히愛蘭征服戰爭이再開될것이라」고稱하야南方愛蘭에서는經驗이淺薄한政治家가紛糾된微局에處하얏슴은英國側에서도其苦心을推察하야忍耐할것이라고忠告하얏고且今回의戰鬪에對하야南方愛蘭當局側은聲明하야日「自由國軍隊가發初英國軍隊에對하야發砲하얏다함은事實違反이라 四日朝新敎會의散會할際에附近에서彈丸이破裂되며忽然英國軍은裝甲自働車로서市中에突入하야自由國軍에對하야退去를命하고自由軍이退去하려는其背後로부터發砲襲擊한것이라」고述하얏다더라(倫敦六日發)

墺匈帝政復活策

前墺匈國皇后對匈牙利攝政書面

墺匈國前皇后「지타」氏는匈牙利攝政「호르티」提督에게書面을送하야彼가스스로匈牙利皇后이라稱하고庶子「오토」가即位하기까지亡父의權利를擁護하야此에努力함에全生涯를捧하겟노라하얏더라(維也納電)

駐米露使退任發表

舊케렌스키-時代에任命된駐米露國大使「쎄쿠메채쿠-」氏는六月三十日限하야退任할旨를發表하얏다더라(華盛頓六日發)

米國의「라인」駐兵

一部不退

米國은七月一日以後에도「라인」地方에一千의軍隊를殘留케하리라더라(華盛頓六日發)

兩個占領地에

佛兵營建設

佛國官憲는占領地인「콜론」及「스타이나우」에大兵營을建設할事를強要하얏는데右兩地는于今外지百名以下가駐屯함에不過하얏는지라右要求는獨逸에在한占領各國軍의經費가過大로서不必要한것을合하야다云하는者도有하다더라(伯林七日發)

英船、米船拿捕

英國쏘로-푸-船은米國의「-무-아、맛쿨맛쿠」線汽船「와비룸」號를拿捕하고「조라리-」號도拿捕하다더라(伯林七日發)

黎、就任條件通電

返電을待하야態度를決定計劃

黎元洪氏는七日全國에長文의通電을發하야巡閱使督軍을廢하고軍隊의處理財政의整理에關한意見을陳하야「若此等의問題解決에就하야完全한保障을得치못하면余는斷然코復職치아니하겟다」고述하고最後에「上으로巡閱使下로는護軍使에至하기까지지금히職을辭하고余와共히國是를定하라」고述하얏는데黎元洪氏는此通電에對한各省의返電을待하야其態度를決定할터이라더라(北京七日發)

廣東黎復職에反對

理由는國會解散의罪人

廣東政府는四日會議를開하고北方政局을討論하야左와如한決議를遂하얏더라(上海五日發)

國會는旣히廣東에서招集되바研究系、政學會系等北京政府로부터買收된者는旣히廣東國會로부터除名되얏슴으로彼等은北京에集會할資格이無하고又黎元洪氏는國會를解散한罪人일뿐아니라任期는故馮國璋氏가代行하야滿了하얏슴으로復職은不可하며中華民國會法及大總統合法國會는皆廣東에在한즉非法行動에被誘되지아니하도록注意를通告할事

職權代行에無異議

各國公使對外交部回答

漸次總統就任以前은國務院에서總統의職務를代行할旨를外交部로부터通牒함에對하야各國公使에서도異論이無한旨로答하얏다더라(北京六日發)

張、再戰中止確定

文治派의極力反對한結果

張作霖氏는士氣를鼓舞키爲하야再次山海關에出動하고吳佩孚氏와雌雄을決하기로決하얏던바奉天文治派는此를不當이라하야最近內外의形勢는日로奉軍의게不利임으로寧히三省의根據를守하야形勢를觀望함이得策이라함에一致되여極力으로張氏의게諫告한結果張氏도此를容認하고遂히戰爭中止를確定하얏다더라(奉天電)

湖南軍獨立宣言

湖南軍은衡州에서獨立을宣言하고三混成旅를增兵하야湖南北伐總司令이라稱하고趙偶氏의게對하야戰鬪를準備中임으로外長沙는恐慌을呈하얏스며戒嚴令을布하얏다는報가有한대岳州의直隷軍은此에對하야一部軍隊를梓檣에派遣하얏다더라(上海七日發)

東淸線의其後戰況

奉天軍『포구라』市奪還

奉天軍의裝甲軍은去五日『포구라』에到着하얏는대叛軍의司令高士賓副司令盧永貴等은『구로데코푸오』에遁逃하얏슴으로叛亂은鎭壓되얏스나『포구라』의市中은昨日來에路中人軍隊의略奪이大規模로橫行되야一般市民은戰々兢々中이며火災는市內各處에起하야昨日午前一時外지에鎭火되지못하얏는바在留日本人은日本軍守備隊에集合하야僅辛히危難을避하얏는대某炭坑(吉林東方附近)에는五六百名의大馬賊團이集團되야當分間은傾壓치못할狀態라더라(哈爾賓七日發)

財政監督設置案

張財政總長은中國銀行團과外國銀行團의共同으로北京政府財政監督機關組織案을國務會議에提出하얏다더라(北京電)

『제』會議의財政交通

에關한決議

『제노아』會議에서大要左와如히財政、經濟及第三、交通에關한決議가可決되얏더라然而右諸決議는單히各國政府에對한勸告에不過하는지라故로會議에서는調出되지아니하얏더라(諸決議는頗히廣汎함으로如左히項目을抄錄함)

第一、財政에關한決議

一、通貨價値의安定、銀行의管理、海外支拂協定의改善

二、中央銀行의聯合、金本位의採用

三、國際協定의採用、此의基礎인(가)金本位의採用(나)紙幣發行等에依치아니한歲出의支辦(다)金價値의實價(라)公認資產의積立事項을中央銀行會議에提出(마)金의自由市場公認資產의準備及諸準備事項

四、豫約爲替의自由市場設立(가)爲替作用의人爲的調節(나)中央銀行의特別保障(다)外國爲替의現物賣買를豫約賣買로換함에就하야의便宜爲替先物取引市場의設置

五、各國財政狀態의報告와國際聯盟과의關係

第二 經濟에關한決議

一、世界大戰에依한領土變更이貿易에及하는影響을少히할事

二、輸出入이安定한行政上에서法律上의區分으로不便을感할과如한事가無하기를保障할事

二、關稅率公表、租稅額의揭記、稅率及關稅規則의勤少한變更及此의公表

三、排外的事情下에何等의設定을遂하며此를主張하는經濟財政上의理由가有할지라도如斯한措置는妨害를行할事의意見一致及此의例外的規定

四、他國民을排斥함과如한種類의租稅賦課의禁止及二重關稅의防止

五、旅券查證規則에關하야는一九二〇年의巴里國際會議의決議勸告를採用할事特히(가)出國查證의廢止(나)入國查證手數料의最高額(라)國境檢查도此에準하며且協定의決行

六、工業所有權及文學及美術的著作權의保護條約의加盟(註一八九一年馬德里協定에對한希望)

第三、交通에關한決議

(前文略)一、一切의交通手段의組織回復改良에對한效力及必要한援助

一、「벨세로나」條約의地准及規定實施

二、國際港의制度及「벨세로나」條約의實施

四、「벨」條約의實施

五、一九二一年의國際鐵道運輸規則에關한協定實施의承認

六、鐵道當局專門代表者會議의召集

後繼內閣決定乎

加藤友三郎男에大命降下乎

後繼內閣組織의大命은加藤友三郎男에降下하기로內定되얏더라(東京發八日午後一時至急電)

後繼內閣總理로內定되얏다는加藤男

金組聯合理事長會議

第一日

第一回各道金融組合聯合會理事長協議會는昨八日午前九時부터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財務局長代理矢鍋理財課長統裁下에各關係財務官吏가列席한後開催하얏는데午前中에는別項記載와如한財務局長의演述이有한後正午에休息하얏다가午後一時부터再開하고諸問事項에入하얏는데京畿道以下各聯合會理事長으로부터各其諸問에對한答申이有한後午後三時에散會하얏더라

財務局長演說

昨八日부터開催한第二回金融組合聯合會理事長協議會에財務局長의演述要旨는左와如하더라

第二回金融組合聯合會理事長協議會의開催에際하야玆에所見을述코자思하노라聯合會設立以來金融組合의事業은今에敍說할必要도無하도다年度의事業을觀하건대

事業計算 數는依然히組合數의增加比例以上의膨脹을示하얏스니即大正十年度末을其前年度末에比較하면組合數는三十三을增하야四百三十三個所를算하기에至하얏는데組合員은四萬人을增加하야二十八萬人을超하고貸出金은八百萬圓을增하야四千萬圓으로預金은六百萬圓을增進하야一千七百萬圓에達하고借入金도其間에四百萬圓을增加하야

二千三百 萬圓을算하기에至하얏도다如斯한成績을擧케된것은金融組合을經營하는關係當事者의努力에基한事는無論이나聯合會의指導援助도亦大하리라고信하는바로서諸君의努力이多함을

金融組合 의貸出金業務가昨年來로異常한發展을致한其反面에는近來滯貸도多少增加하는傾向이有하고又預金은昨年度에特히現著히增加하얏스나組合員의預金은尙且約三分의一에不過한狀態에在하야金融業務上에는尙且遺憾되는點이不少함으로從來貸金의警戒할事、資金使途의調查를嚴格히行할事、組合員의貯蓄獎勵에努力할事等에對하야는應時하야

屢次示達 한바로서諸君도此等의點에對하야는適當한監督에努力할줄로思하나今에金融組合의事業은半島金融界에一大勢力을形成하기에至하야其聯合會는其勢力의樞軸이되야其事業資金의調節을司하는地位에在한것인즉諸君은恒常經濟界推移의大勢에注意하고一面으로는組合個々區域內의經濟狀態를知悉하야

資金調節 의方面보다도恒常適切한指導援助를加하야外所屬組合의金融業務로하야금健實한進展을遂케할事에深히留意하야努力할事를望하노라(未完)

五月中朝鮮貿易

比前年九百五十八萬餘圓增加

五月中朝鮮貿易概況을見한즉輸移出一千八百四十二萬餘圓輸移入二千八百十八萬餘圓合計四千六百六十萬餘圓으로서前年同月에比하면

輸移出 三百九十四萬餘圓輸移入五百六十三萬餘圓合計九百五十八萬餘圓을增加하얏스며一月以降의累計貿易額은輸移出九千六百二十九萬餘圓輸移入一億一千五百十三萬餘圓合計二億六百八十二萬餘圓에達하야此를前年同期에比較하면

輸移出 一千六百十二萬餘圓輸移入二千五百六十四萬餘圓合計四千百七十六萬餘圓의增進을示하고此入超過一千四百二十四萬餘圓은輸移入超過하얏스며次에本月貿易의內容을觀하건대輸移出에米는日本內地에比하야依然히割高價인故로出荷가不好하얏스나不振이엇든

前年同 月에比하면數는六千石價額一百二十九萬餘圓을增進하고其他魚類、炸蠶糸、鐵類等이引續增加를示할뿐아니라不況이던綿絲、煙草、海藻等에可見할增進을示하얏도다그래서減退의現著한者는小麥、大豆、牛皮、肥料等에不過하얏스며輸移入에는砂糖、麥酒、生布類、機械類、豆粕等이

入荷不 振이얏스나粟의需要가益々好況을告한故로百三十五萬餘圓을增加하고且中國麻布는銀價軟調時의旣約品의入津으로서二百十七萬餘圓의激增을告하고其他米、石油、綿、紙類、鐵和木材等에不少한增進을示하얏더라

全道 麥作減收

主産地의旱害로

今年의麥作豫想은今明日中總督府로부터發表될터인바大體에[illegible]

商況과金融

少繁狀態

朝鮮銀行調查에依한五月中京城의金融과商況을聞한즉左와如하더라

米 阪地期米는月初에相當한古米의買行이有하얏스나依然히鈍狀을呈하야고特히中旬에政府持米拂下의發表로更히軟調를呈하얏스나古米의大勢가旣히消化되야幾分間强硬하얏고正米는小額의去來가有하야變動이無하얏는바朝鮮米는依然히逆境이有하야日本으로부터注文이無하고精米側은傍觀하야値히當地市勢는上旬三等合格二十九圓五十錢地摺上二十九圓中旬三等合格二十八圓[illegible]下旬三等合格三十錢地摺上二十九圓普通二十八圓八十錢同普通二十八圓八十錢이더라

大豆 不需要期에入함과米價의無勢로因하야月初以來去來가不振하얏든바下旬에至하야出回가減少하야人氣가頗히恢復된概이有하나市勢는擧山物上旬十六圓中旬十五圓八十錢下旬十六圓三十錢을唱하얏더라

綿絲布 上旬은別로變更이無하얏스나中旬에入하야米棉의軟化、銀塊의强硬에加하야天津方面의輸出이相當하얏고生產增加도無하며下旬에米棉의作況은悲觀되야市勢는漸次强調를示하야賣崩側買氣를促함에至하야品少를呼하는時에阪地好況의影響으로大體好勢에越月하얏는데市勢는三에이上旬二六八圓中旬二七〇圓下旬二七五圓金巾上旬二一〇圓中旬二二五圓下旬二二〇圓이더라

砂糖 上旬製糖會社의安價賣止에加하야海外强騰의報로氣勢가恢復되고協定價格의引上으로益々上騰步調를示하얏고外糖의强騰으로好調에越月하얏는대市勢는丁印上中旬을通하야二十四圓下旬二十五圓七十錢을唱하얏더라

粟 은漸次大麥出廻期에接近하얏서滿洲로부터輸入이一段落을告하얏슴으로品少量招致하야市勢는少騰하얏는데八面城物上旬十四圓中旬十四圓三十錢下旬十四圓二十五錢을唱하얏더라

金融 商況이敍上과如함으로閑散에傾하야此等資本金의移動을喚起할材料가無하고寧히回收에傾하야고資金은幾分間日本內地에吸收되얏는바目下에資金[illegible]

資金集散概算

朝鮮銀行調查에依한六月中의朝鮮資金集散概算은[illegible]

收納

國稅及地方稅收入 [illegible]

會社株金拂込 [illegible]

計 [illegible]

拂出

會社利益配當 [illegible]

會社債務償還 [illegible]

債務利子拂 [illegible]

計 [illegible]

重要品在庫數

京城倉庫會社와朝鮮商業銀行京城倉庫共營社의五月末에在한在庫[illegible]

京城勞銀昂騰

朝鮮土木協會調查에依한六月中勞銀은漸次土工時期에入하야各種職工의勞銀이騰貴하얏는데土工、木工、煉瓦工의建築工事에係가有한賃金은十錢乃至四五十錢의昂騰을示하얏고牛馬車와如함은需要가無하야一圓의低落인대比하야今年의土木建築工事는昨年에比하야大體繁忙하다더라

臨時船舶職員試驗

本月二十日부터總督府遞信局木浦出張所에서左記種類에限하야臨時船舶職員試驗을執行한다더라

乙種船長、乙種二等運轉士、乙種一等運轉士、湖川港乙種一等運轉士、湖川港乙種二等運轉士、漁船乙種運轉士、小形船運轉士、一二三等機關士、發動機船一二三等機關士

鎭南浦築港陳情

鎭南浦築港速進運動키爲하야鎭南浦平壤兩地代表로入京中인富田儀作、西崎鶴太郎、松井民治郞外諸氏는七日午前十時總督府에關係當局을歷訪하야鎭南浦築港速進에關하야陳情하얏다더라

畜産同業組合新設

朝鮮重要物產同業組合令第三條에依하야左記畜產同業組合을設立함을五日附로認可하얏더라

始興郡畜產同業組合

安城郡畜產同業組合

龍仁郡畜產同業組合

長湍郡畜產同業組合

江華郡畜產同業組合

慶北六公普校新設

慶北道에서는左記公立普通學校를新設하기로되얏더라 [illegible]

辭令

[illegible]

消息

[illegible]

橫說竪說

▲高橋內閣의後繼는加藤內閣으로內定되얏다한다그러나加藤內閣이라하야도政友會總裁加藤高橋의組織하는內閣이아니라高橋內閣의延長이라할加藤友三郎君의組織하는內閣이라한다▲가튼加藤內閣이면加藤內閣보다政友會의加藤內閣이다[illegible]

商況

昨後場은大阪步調三四十丁低落로軟軍이多少活動하얏스나當地는三十六圓四十錢으로三十六錢正米時勢强硬하며有力側買注文外지低價를傳하얏슴으로當地亦說과大阪今朝初付高價로傳하니軟軍의活動으로三圓를割하고硬軍의士氣는더욱旺盛할슴더라 [illegible]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仁川海岸町三丁目 野中仲買店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仁川海岸町三丁目 [illegible]田義平

商況

日本金利及市況

橫濱生糸

大阪三品 八日前場

大阪株式 八日前場

京株賣買高

株式市場

前場好調 京取鈍狀

京株賣買價(八日)

株名	前場 今週	前場 來週	後場 今週	後場 來週
京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株界前途觀

京取重役會

各地輸市勢

實業銀行定礎式

朝火設立許可延期

短期改善協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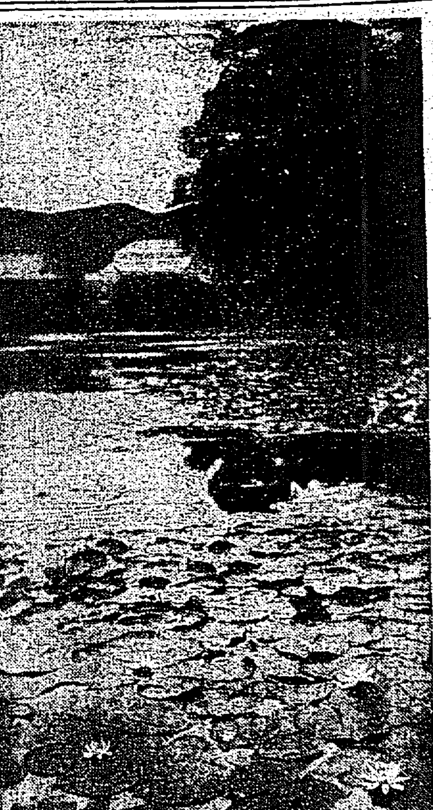
穀物標準價

綿絲布標準價

短期取引 乙之部

ClibPDF - www.fastio.com

…한便으로賣하얏더라 ▲氣配는다소堅한便으로賣하얏슴으로더욱堅하야昨止價보다十二丁高 ▲第二節 …은不成에中은二圓[illegible]合하야十六錢에 ▲第五節 …은十五 一[illegible]



비뭇헤만발한수련 작일창경원에서

萬事를委員에一任
텬도교교인대회첫날경과

손병희(孫秉熙)씨의 서거로 인하야 스승을일흔텬도교는 이어서 현교주 박인호(朴寅浩)씨의 사직문데로 케도상에 큰문데가 이러난 텬도교 신구량파의알투는 점々악화하야 맛츰 화합할희망이 보이지아니하는 텬도교의장래는 과연엇지되라는지 이는텬도교인 자데뿐아니라 일반사회에서도 매우 주의를하는바이라 신구량파의합동과 텬도교의 유신을위하야 지난륙일에 경운동 그교당안에열닌 텬도교 청년대회(靑年大會)에서 긴급히 교인대회(敎人大會)를열어 교주사직문데와 금후 텬도교의중대문데를 결뎡케할일파 신구량파는 서로 양보하야 속히합동하도록 하기를 중앙총부당국자의게 진정하기로 결의가되야 즉시대회의대표자가 중앙총부 간부에게 그결의를전하고 교인대회를 열어달나고 진정하얏더니 간부간에서도 이에 공명한바가 잇섯던지 칠일하오삼시에 그교당안에 교인대회를 소집하얏다 먼저림시회댱을 추천하야 권병덕(權秉悳)씨가회댱으로승석한후 먼저교주의사직문데를 의론할새 이문데는그교회안에 잇서서는 가장중대하고 큰문데임으로 각々의견을말하게하야 오후륙시경까지 혹은교주를 업시하고협의제(協議制)로하자는의견도잇고 현교주는 손씨에게서 직접으로 심법(心法)을 전수하얏스니 사직할수업다는 의견도 잇섯스나 졸지에가부를 결뎡할수도업는문데임으로 위원을 선뎡하야 모든일을 위원이의론하야데의(提議)하면대회에결의하기로하고 각도에서 세명식삼삼도에삼십구명도사(道師)중에서 열명당로(長老)비명과중앙총부 간부다섯명합계오십팔인에게위임을하고 하오칠시에 폐회하얏더라

協議制가有力
교주는업서질듯

교인대회에 교주사직 문데와기타교중의 모든문데를 의론하야오라는부탁을 바든 오십팔인의 의원은 작팔일상오십시부터 중앙총부에서 위원회를열고 협의시교인대회를 열고 위원회에서 데의한바를 의론케 되얏섯는데 이에 대하야 중앙총부 모씨는말하되교주 박인호씨의 사직할뜻은매우견고하야 도모지 돌닐수가업슴으로 부득이 교인 대회를 열고문데를 해결하랴 한것인데 이와가치 중대한문데를 졸지에 해결할수가 업슴으로 칠일회의에모든것을 위원에게 일임한것인데아모리 생각해도 새로히교주를선뎡한다든지하는것보다는 교주를 아조업시하고협의케(協議制)를채용하게될듯하며 신구량파의분규는 아주무엇이라 말할수업다하더라

天道敎紛糾의影響
신구량파가분립된다하면 교회밧게영향은엇더할가

텬도교의문데가 이와가치 복잡하게됨을따라 그영향은 그교회자테에만 밋치는가 혹은교회밧게까지 밋치는가 이는역시중대한문데의 하나이다 이에대하야 텬도교의사정에 정통한 모씨는 말하되 『교주의 사직문데는 새로히 교주를내이든지 협의케도로하든지 그다지

큰문데가 될것은 업다고 할수가잇스나 데일어려운 문데는 신구량파의분규외다 지금형편으로보아서는 아모리 청년간에서 조화책(調和策)을 쓰나하여도 별로히성공할듯치는 보이지아니하고 두파가 분립(分立)될것은 멀지아니한장래에 사실로 드러날듯한대 만약그와가치 분립이된다하면 그때에는 텬도교자데의 문데도 문데이지마는 사회에밋치는영향이 실로클것이 올시다 현재신파에가담한 수효는 자세히는모르나 대개사분의 일가량은 되는모양인데교인의

사분의일 가량이 써러저나아간다함은 곳텬도교에 수입되는성미대금(誠米代金)의사분지일이 감한다는말과가트며 텬도교의모든경비는오즉이성미대금으로써오든것임으로먼저재정상의타격을 밧는동시에 텬도교에서 간접직접으로 경영하든사회사업(社會事業)곳다시말하면 학교라든가월보(月報)가튼기관도 그전과가치 유지하기어려울것은 사실이라 나의생각과관찰이 다행히틀닌것이라하면 모르거니와 불행히맛는다하면 정말사회에밋치는영향도 클뜻하오」하더라

襁褓兒를毆打한
원인은도로관계 암본은계속취조

지나간음력오월오일신안주(新安州)에서농회사암본광오랑(岩本光五郎)이란자가 한살도못된어린아해를구타하야중상케한사건으로 신안주주재소(新安州駐在所)에인치되야 사실취조를밧는중이라함은 임의 보도한바어니와 암본이란자가 그와가치한살도못된 어린아해를 구타한원인을들건대 암본의집뒤에는 본래부터 통행하든좁은길이 잇는데 암본이가 그집에든후로부터는 통행을금지하여오던바 지나간단오날(端午日)에 그아해의모친되는장은한(張銀漢)의처가 어린아해를업고 암본의집뒤 좁은 길로지나가는것을 암본이가 보고 그길로 다니지 말나 하엿스나 장은한의처는 암본이와 바로이웃집에 사는터임으로 조흔말로 지내가면 무슨관계가 잇느냐고 대답하엿더니 암본은 돌연히 달녀드러 구타한것이라는데 장은한의처는 상처가업스나 어린아해는 중상을 당하야 생명이 위태할디경이라 린근에서는 암본의폭행에 누구나분개하며 암본은모々유력자에게 간청하야 피해자의고소장을 취하하도록하라고 운동중이라더라 (안주)

南監理敎講演
선교긔념사업으로

야소교남감리교회(耶蘇敎南監理敎會)에서는선교백년 긔념뎐도단(宣敎百年紀念傳道團)을조직하야 지난사일부터 오는십팔일까지시내에서 뎐도강연 회를개최한다는데 디방에서도 춘천(春川)원산(元山)개성(開城)에서세단데가 올나와서 경성과합하야종교 례배당 광희문례배당 태화녀자관 서대문밧 시란시장에서각々강연을 한다더라

東京基督青年夏期巡廻傳道
래칠월오일부터 각처로순회계획

동경(東京)에잇는조선긔독교청년회(朝鮮基督敎靑年會)에서는 작년가치 금년여름에도 그회종교부(宗敎部)의주최로순회뎐도대를조직하야 가지고 조선각처로순회 할터이라는데 일행은 네명이오 칠월삼일에 동경을써나서 오일에 부산(釜山)을위시하야각처로 순회할터이며 대원과순회일뎡은 다음과 갓다더라 (동경)

◇傳道隊員 蔡弼近、宋鎭顧、宋昌根、白南燕

◇巡廻日程

日	程
七月 三日	東京發
同 五日	釜山
同 六日	馬山
同 七日	密陽
同 八日九日	大邱
同 十日	公州
同 十一日	全州
同 十二日	光州
同 十三日	淸州
同 十四日	仁川
同 十五十六日	京城
同 十七日	鐵原
同 十八日	元山
同 十九日	咸興
同 二十日	中路休息
同 二十一日	開城
同 廿二、三日	海州
同 二十四日	沙里院
同 二十五日	載寧
同 二十六日	安岳
同 二十七日	長連
同 二十八日	鎭南浦
同 廿九、卅日	平壤
同 三十一日	黃州
八月 一日	安州
同 二日	宣川
同 三日	新義州
同 四日	義州
同 五日	解散

本町管內에서 重大犯
황해도경시의손에 중대범인한명데포

재작 칠일오젼에 황해도경찰부(黃海道警察部)고등과에근무하는경시뎐영찬(田永燦)외형사한명이 돌연히본뎡경찰서에 출장하야 동서관내에서 엇던나회이십삼사세가량되여보히는청년한명을 인치한후 동서아래청에잇는 형사실을굿게닷고 방금엄중히 취조중이라는데, 원래사건을 절대로 비밀에붓침으로 그내용은알수업스나 본사의 탐지한바에의하면 요사이 황해도경찰부에 시국에관한 모종범인이톄포되는동시에 그청년은 그와련락하여가지고 경기도(京畿道)황해도(黃海道)일대에서모운동을이르키라든것이발각되야 그와가치데포된듯하다더라

◇在外同胞慰問會◇
竹工으로有名한羅州
도중학교에서림시강연까지

재외동포 위문강연대는 륙일오후비시경에 학교(鶴橋)에 도착하야 다수유지의환영을 밧고 이곳 면사무소(面事務所)에서 림시로 강연회를열고 이곳청년동명규간(丁奎玕)씨의 사회로 대략세시간의강연이 잇슨후에 칠일오젼열시에 출발하야 동일오후열시에 라주(羅州)에 도착하야 이곳청년회관에서 동회댱박봉의(朴鳳義)씨의 사회로강연회를열고 영신학교 (永信學校)교댱 안인순(安仁順)녀사가렴출하고 온녀학생들의 창가로막을열어 김동성(金東成)씨의 활동설명과 신구범(愼九範)씨의 동포위문에 대한설명이잇슨후「조선민족의이대운동」이라는문데로 약한시간동안 송진우(宋鎭禹)씨의강연이잇서 자못성황을이루고오젼한시경에 이곳청년회의주최인환영회에출석하야 주객이 질거움을다하얏는데 이곳청년회는 조선목수의 손으로지은것으로 이번에 우리일동이처음으로강연을비롯하얏고 이곳의산물은 대의세공(竹細工)이 가장유명하더라 (라주특뎐)

鷄卵大의大雹
경주디방의참상 보리와삼은전멸

지난사일 하오세시반부터 경주군내남면(內南面)에는약십오분동안이나 계속하야 주먹가튼우박이와서 보리(麥)와 삼(麻)은아조타작을한것가치되고 사람까지 부상하얏는데더욱 견천(泉), 상신(上辛)비지(飛只)의 세동리는 그중에도더욱 심하야보리와삼은 한곳도성한곳이 업시되얏슴으로 가가호々에 부녀의통곡하는소리는 참아듯를수 업스며우박의 중량는대략 한량여덜돈중이오 계란보다 큰것이더라 (경주)

光州에豪雨
모내기는넉々 우박온것이걱정

모를옴길시긔가 박두한 이때에 한달동안이나 계속되는 큰감을로 광주(光州)디방의 농가에서는 몹시애가석지안튼바 지난륙일하오여덜시부터 뢰졍벽력이 이러나며 네시간동안이나 계속하야 창너가치비가쏘다저서 모내기에 큰념려는업슬만큼 논에물은들엇스나 바둑갓흔 우박이 비에섞기어 와슴으로 보리에는 다소의 피해가 잇다더라(광주)

傳處不知의郵便物
작년일년동안에이만일천통
그중에는창긔의편지가다수

사회의생활이 발달되야 갈사록 서신의왕래가 복잡하야 지는것은자연한 리치이나우리 조선안에도근래에는 서신이날로 징가하야감으로 각우편국에서는 해마다사무가 분망하야가는 터인대 자연우편물이 복잡하야 가는중에남자를 못찻는편지도 매우만히싱긴다한다

데신국에서 작년중에배달치못한 우편물수효가 총계이만일천칠백 삼십이통인대 재작년도총계에 비하면 이천삼백팔십통이징가되얏고 소포 우편물로는배달치 못한것이 륙십오개요집을잘못찻기 싸닭에 운반하는중간에서 소포가푸러저서 배달키어렵게 된것이 사백 사십칠개나된다 젼과와갓치 배달치못하게된편지나 소포는 다만영수할사람이 분명치못하야 배달치못한것이아니요발신인(發信人)이나수신인(受信人)이모다분명치못하야 결국은공중에서 임자업시떠돌게 된것이라한다 이와가치님자업는 이만여장의 편지를조사하야 보면볼수록 흥미잇는것은 통치 한다든지또는

중대한관계 를긔록한것은몃장이아니되고대개는련애장이라든지 또는 류곽갓흔데에서 창기가청낭에게 보내는것이 만타한다 창루에는 녀자들은하로에도 몃사람의낫산사람을 바드며 낫싼우슴배와는동안에 구름갓치지내가는 야랑(冶郞)의 주소성명을 어렴풋하게드르며그 먹으로 손도업고 일도업는대에 돈푼이나 청구하는 편지가대다수를 한다 일시뎍 정욕에몸니어 한두번창루에발을 드려노흔 남자가무슨정이 잇서々자긔의

주소와성명 을친절히일너 주리오「시골사는 리서방」과「서울사는 박서방」이 가장친절히가리켜주는 편이다 이와갓흔몽롱한귀여울가지고 정부의 주소를쓰는동시에 발신인의 주소도데면상 창루에잇는누구라 할수업는싸닭에 아모리나 생각나는대로 써버리는고로 우편국에서는 사방으로 수신인을찻다못하야 부득이발신인에게 도로돌녀보내려하나 역시주소가 분명치못하야 필경은 님자업는서신이되야 버린다한다 이와갓흔배달할수업는편지는 데신국에서 일개년동안을 보관하얏다가 일년후에 래여바린다하며 소포는

배달하지못 하는것이별로업스나 운반하는중도에 소포가푸러저 배달못하는것이 간혹잇다하니 이러한것은 발송하는주인이 주의할필요가잇다고 모우편국원은말하더라

岡崎町에火災
공장한채젼소 원인은해조사중

작팔일오젼다섯시십삼분경에룡산강긔뎡(龍山岡崎町)백삼번디청수공작소(淸水工作所)에서불이나서 한석으로이은 공장한채이십팔평을 다래이고 동사십분경에 진화하엿는데 그공장에는 재목을만히쌋아두엇든곳임으로 [illegible] 못쓰게되야 [illegible] 재목도젼부 타버리어 손해가 적지아니하며 불이난원인은 방금조사중이라더라

臥龍洞에不穩文書
뎐신주와벽에 최모라는일홈으로

재작칠일오후에 시내와룡동(臥龍洞)비거리에 최모(崔某)라는일홈으로 시국에관한 매우불온한문서를 뎐신주와 벽에붓친자가잇섯는데 이를발견한 종로경찰서에서는 크게소동을 일으켜 그문서를 압수하는동시에 방금범인의 자최를 엄탐중이라더라

旭町強盜眞犯
룡산에서한명데포

지나간사일 오젼두시경에 시내욱뎡이뎡목(旭町二丁目)에잇는등뎡관태랑(藤井寬太郞)의집에강도사건이 잇슨후로 본뎡서에서는사법계 형사들이 밤을새며가며대활동을 행하든바 재작칠일오후열시경에룡산(龍山)모처에잡복하야잇는리모(李某)라는진범인을 데포하엿는데 방금엄중히취조중이며 그의공모자되는다른범인한명은 경부선(京釜線)방면으로도망하엿슴으로 동서에서는 즉시형사가 그의자최를따라갓다는바 일간모다 데포될모양이라더라

紙幣僞造의口實로
오천여원을사긔편취한사건
범인두명은 취됴후검사국에

서대문경찰서에서는 지폐를 위조한다는구실로 오천여원의 금권을 편취한범인두명을 데포하야 취조를맛치고 작일검사국으로 넘기엇는데 그내용을 듯건대 시내홍파동(紅把洞)백이십사번디 젼과네번 김성근(金成根)(二○)과 죽첨뎡(竹添町)이뎡목 사십일번디 젼과두번 김성만(金聖萬)(二三)의두명은 공모하고지폐를위조한다고 인쇄긔계와 가치조그마한 긔계하나를 만들어가지고 황해도 연백군(延白郡)에사는 심종환(沈鍾煥)을 속하여 지폐위조의자본금으로오천여원의현금을 편취한사실인데 소위 지폐를 위조한다고 만든긔계는 아해들의 작란감가튼것 이라실디에 아모소용도업는것인데 심종환을 속히기위하야 그긔계속에 십원지폐몃장을 집어넛코긔계를돌니면 지폐가나오게 한것이오 사실심종환은감쪽가치 속은것이오 사실이발각된 동긔는심종환에게서 편취한돈을 분배하다가싸홈이나서 왁자지껄 한것을형사가발견하고취조한결과사실이탄로되야데포된것이라더라

犯罪가離婚理由
빈々한리혼소송

고양군한지면 상왕십리(高陽郡漢芝面上往十里) 구십칠번디에 사는리엽분(李葉粉)(二七)이라는 녀자는 지나간칠일에 자긔남편되는 리일룡(李一龍)을 거러서 리혼청구 소송을 경성디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 데출하얏는데 그내용을들은즉 그리엽분은 대정삼년사월경에 리일룡과 결혼하야 부부의생활을 계속하야오든바 원래리일룡은 품행이단정치못하고 날마다술만먹고 집에드러와서는 자긔처를 구타하야 항상풍파가 끈일사이 업슬뿐아니라 작년팔월경에 리일룡은절도죄를 범하고 경성디방법원에서 팔개월의징역선고를바다 과렴치죄를 범한싸닭에 그와가튼 더럽지못한 사람과는 살수업다는것이 리혼의 리유이라더라

京元線夜行車
이십일일부터운뎐

만텰경성관리국(滿鐵京城管理局)에서는 경성원산(京城元山)간의야행(夜行)렬차를운뎐할 계획이라함은 임의 보도한바어니와 현재에두번식 왕복하는중 매일 오젼여섯시이십분에 원산(元山)을출발하는렬차와오젼여섯시십분남대문을출발하든렬차를각々오후열한시젼후로개뎡하야 그잇흔날아침에 각々도착케할예뎡인바 아직완뎡치는 아니하얏스나 금월이십일일경에 실시할듯하다더라

薄倖한美人
이리저리표랑하다가 남지에게유인이되여

지나간륙일 오후열두시경에 시내청엽뎡(靑葉町)에서 엇던일을하는안영긔(安永基)방에엇던아름다운 녀자한명을 모러노코남자셋명이 술을먹으며 그행동이 매우이상함으로룡산(龍山)경찰서에서는 그들을 조사하여본즉 그남자중에한명은 시내 청진동 삼번디(淸進洞三)에사는최상선(崔相善)(二十四)이라는자며녀자는 대뎐(大田)에사는 뎡옥표(鄭玉杓)(十七)이라는녀자인데 수일젼에젼긔최상선에게 꾀임을 밧아 어데로팔니워 가랴든사실이 판명되엿는데 그녀자는 본래룡산태생으로 열나섯살에 엇던남자와 결혼 하엿스나 그남자가 삼작년만에 운동중에 그만 희생이되여 죽은후로부터 어데로갈길이 업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얼마 젼에대뎐(大田)에가서 엇던사람의집에류하다가 그곳으로 떡을팔나온 젼긔최에게유인이되야 경성으로 다리고와서 [illegible]

旱餘의甘雨
모종비는넉々

[illegible] 비가 오래오지아니한 싸닭에디방의농민들은지금한창모내기시긔를당하야 날마다하날만 바라보고 매우근심으로지내든바 재작일부터 비가시작되야 [illegible] 모종가튼것은 충분히 하게되얏스며 [illegible] 모를내이겟다더라

民衆劇團開演

[illegible] 민중극단(民衆劇團)에서는 [illegible] 단성사(團成社)에서 [illegible] 개연하는 [illegible] 매우 흥미잇는것이라더라

勸商場開業

시내종로사뎡목(鍾路四丁目)에잇든 종로권상장(鍾路勸商場)에서는 이래모든준비가 거위 완성되엿슴으로 오는십일에 그일부를개업하고 이십오일에 젼부를개업할터이라더라

시계두가판매

[illegible] 대제상뎜(大濟商店)에서는 [illegible] 십일일부터 [illegible] 시계를특별가격으로 판매한다더라

暴風雨警報
인천관측소발표

작일오후 열시경에 인천관측소(仁川觀測所)에서 발표한 바를 드른즉 황해하류(黃海下流)에는 바람이심하며 평안(平安)남북도에서비가 시작하야 평안(平安)남북도 함경(咸鏡)남북도 황해도(黃海道)경긔도(京畿道)강원도(江原道)연안에는 비가오리라하엿더라

◉온도비교◉ (攝氏)

今年昨日(正午)	七二·七
昨年昨日(正午)	八一·一
昨年最高	九六·八

天氣豫報

日出	上午五時三四分
日入	下午七時二七分
雨量 自八日午後六時 至九日午後六時	小
溫度 七日最高	七八·四
攝氏 八日正午	七二·七

●휴지통

▲경상남도진주 남강에는작년여름부터「보트」라하는배를 띄우고청년들이 운동겸노는일이 잇섯는데 ▲금년여름에는 청년의 운동으로만사용되는것이아니라 부랑자의노리터가되야「보트」에 가성과술을실고음란한행동을하는일이만케되야 그지방유지는 걱정거리하나가 늘엇다고 ▲진주면당으로잇는「상원모」의안해되는녀자가 자긔집 젼방압해서 흡빈과자한개를잘못집어 [illegible] 사건은우리의 긔억에 아즉도 사라지지아니하는데 ▲평안도 신안주에서「암본」이라하는「농학사」의학위를가진자가 또한살된어린아해를 따려서중상케하엿다는 소문이들닌다 ▲아모리 풍속이다르다 하기로 어린아해를 따린다는말인가 이것도 일본사람의 국민성의하나인가

것는다•부서진다•어신디•여리근신즉시업서집니다
──•●우리배달민족각새로운망채●•──
사십오전 머리기름 극상품
배달기름
京城苑洞三四 배달舍製
京城鍾路東亞부인상회賣

開業廣告
京城府黃金町一丁目五十一番地
海成旅館 白
電話本局三三三三番

補陰補陽
滋陽丸
服用하는이는 最後의勝利者!
何故?
모든弱點과、病苦를제치고 絶對로健强體가되야서
活潑々한新生力을 生存競爭의大舞臺上에 마음것發揮하게됨이로다
服用하시요!! 모든弱者여虛者여!!
主治 △腎氣不足 △房事不足 △腎虛腰痛 △病後氣短 △手足厥冷 △陽疾不起 △陰虛火動 △房後勞困 △形容枯槁 △消精夢泄 △其外先天後天不足의諸症
地方特約店希望者는此際에申請하시오
本舖 京城鍾路 和平堂藥房 主 李應善
電話本局二六九七番·振替京城八一八番

民衆劇團
(藝題)
六月九日부터五日間
悲劇 燈臺直 尹白南作 全一幕
正劇 歡喜 尹白南案 全一幕
喜劇 주먹이나 尹白南案 全一幕
每日藝題交換함
授恩洞 團成社 電話本局九五九番

實習生募集
[illegible] 儆新學校手工部에各科目을設置하고 實習生을募集하오니 入學志願者는十五歲以上으로左記[illegible]에依하야出願하시압
一、出願期日 本年六月二十五日
一、人員 一百人(但男子)
一、開學 同年七月一日
一、卒業期限 滿六個月
一、洋服科修業科目 各種洋服、裁斷法、[illegible] 製靴法、洋服洗濯法
一、授業料 五十錢 [illegible]
卒業後에는資格과技能에依하야 [illegible]
一、特別히苦學生을爲하야 [illegible]
詳細한事項은 [illegible]
但地方에서細明을알고자하시면 [illegible]
京城府蓮池洞一番地 電話二[illegible]番
儆新學校手工部

注意 [illegible]

自 [illegible] 至 [illegible]
一割引大賣出し
京城本町二丁目 村木時計店
電本四七一 振替三一九〇

무쇠탈 (百五十五)

閔牛步

불칭한아히들아!

무쇠탈을벗긴 시톄의얼골은 안된숨이 분명한줄알엇더니 천만의외에그는참아바로볼수업는 해골이엇다 해골이다되고겨우안나마와 두엽에검푸른살덩이가 명색만남아잇섯다 아々안될일이다 숨이넘어간지겨우 이십팔시간만에 벌서피부가상하고 살이썩어서 백골이되엿는가 아니다 아니다 이것은안된숨의 시톄가아니라 이왕에 검뎡수건으로 얼골을가리고 요하게교당뒤로 상자를훔처다 내여가던 괴물이다 그뒤에도 항상어데사람의 뒤를따러서 귀찬케구든위인일다 그는겸풀이업서지고 두눈만 뒤여난모양이며 코가커커구녕만 뻥하날것이라든지 입살은 간곳업시한것이 영겁하게보이는 것이 조금도다를것업다 더욱히그빰으로부터 턱근처에걸처서 시드러붙은 검풀은살에 마치살진도야지털과갓치 오다가하나가다가나씩 경성드뭇한털이 낫승은무섭다고할는지 흉하다고할는지아모리보아도사람의몰골이라고는할수가업섯다 이왕에는그자가밀경그러한탈을만드러쓰고

로의론을한후에 이괴물에게 려남야을먹이며 살녀내 가지고 무리보는것도 또한한가지 수단이마 그는본래부터 엇더한사람으로서 엇더케하여서 언제부터감옥에드러갓스며 그외에도 자긔아는바로 리약이를 식이고보면 분수도 상고될말을 엇어들을는지 알수업다고 의론이일치되야 고수게는 엽헤방으로 시톄를옴겨 노코 라메신의 지휘하던말과가치 사려남야을먹여서더라

이로부터 삼십분이지나고 다시한시간이지나 밤은 벌서열두시가되여가나 괴물은 사러나지 안는다 지금까지 몃번을시험하야 를녀본일이업는 신정스러운약으로서 효험이업슬리는 만무하건만은 살어나지 안는것이야 엇지하랴 이약은만들어둔지 오래되여 효험이업서젓거나 그러치아니하면 이 괴물이 죽은뒤로부터 이십사시간안을 지난것이다 그 원인이야 엇지 되엿던지여러사람들의 절망은 일반이다 이러케된 이상에야 또다시 누구를 원망 하며 누구를 나물하랴 세사람은다가치 고개를들고 한숨을쉬는수밧게 다시도

리가업섯다 이때로 내벌어두면 세사람은 밤이새는줄도 몰으고 부지럽시 괴란々々하야 엇슬 것이나마침이때에 조용히 문을열고 들어온사람이 잇섯다 이는 이교회의당로 긔로데로민이엇다 로인은동정하는 눈물을 두눈에가 득히씌우고 아々불행한 애들이엇더케하여 정신업시안커잇는 세사람들을 너보앗다 처음으로 당로의 들어온것을알고 춘풍이와 고수계는놀난모양으로 벌떡 일어서 々날카라운 눈으로 당로를바라 봄은 만일을염려하는 의자에서 이다 그러나 방월희는 의자에서 나려와 쌍바다에무릅을 울코당로에게매달니면서 눈물에 저준 목소리로 「마침잘오셧슴니다 지금커의들을 인도하실 사람이 당로이외에 어데잇겟슴닛가 당로쇠서는 불행한죄수의 유언을 듯것다하오니 그는엇더한 사람이며 무엇이라 유언 한것들을 으셧지요」하고 당로는 참아색리칠수업서 가련한여자에게 대한 긴채로 의자에걸어안지며 죄만 은사람들을 구하라와소를하엿다 앗가 모디에서부터 이사람들의 뒤를딸으던것인이 당로일것이다 이로부터 당로는무슨말을하려고자하는가?

그위에다또검정수건을감엇는가 의심한일도잇스나이제보는탈이 아니고 정말얼골이다 정말괴물이다 월희가괴롭한것도 괴이치아니한일이며이자가검정수건으로 갈이고단닌것도 응당그러할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누구인가 언케 엿더케하여서 무쇠탈을벗는가 그는 정말무쇠탈이 배동명참소에서 다시비며울눈갈때까지 파 다가 죽어서까지 여러사람을속 이는가 이괴이한일에는 고수계 와춘풍이도 놀난듯헤 귀가막혀 정신업시 안커잇슬뿐이엇다 이 때에 휘한하고 숨을내쉬며 정신을찬인것은 지금 괴롭되엿던월 희엿다 두사람은 비로소월희의 괴롭되엿던일을생각하고 춘풍 이는월희의압흐로 고수 계는월희가신놀날가염려하야 그괴몰의시테에 홋니불을덥혓 다 원래월희의괴롭되얏다가 외랍이고보메 미구에 곳정신을 찰이게되지라 이로부터세사람은 서로머리를 마조대고 의론하기 시작하엿다 이번일은 이왕 가되엿거니와 때관렵 이것은성 던우이 역시무슨계획으로 시테 를밧구어 내보낸것이나 아닌가 혹은무슨달은관계가잇는것인가 그러한사닭은 알수가 업거니와 아무러런지 라메신의 계획으로 도 마지막수단이라고하든 그수 단조차소용이업게되엿스니인케 는 다시엇지할수업다 여러가지

全南麥作狀況

全羅南道麥作狀況은旱災로因하야生育이頗히不良한傾向이有하든바中途適宜의降雨로發育이挽回되야比較的大減少를免하얏스나前年度實收穫高大麥一七、二三石小麥一五五、一七九石에對하야本年度의豫想高大麥一一、八九、〇五三石과小麥一三一、四一七石에比較하면大麥에一割六分小麥에二割四分의減少를示한다더라(光州)

忠北麥作狀況

忠淸北道의本年度麥作은播種期의氣溫과降雨의順調로因하야生育이良好하얏스나三月二十二三日頃의大霜으로因하야大小麥이皆寒害를受한後乾燥하야旱天이繼續한故로一般農家에서는平作以下를豫想하다가其後의降雨로外若干이回復되얏스나平年에比하면約二三割內外의減收는免치못할狀態이라더라(淸州)

大田敎育會義捐金

去二日下午三時부터大田本町二丁目吳聖三氏方에서大田敎育會任員會를開하얏는데同會는去四月九日에創立된바大田郡十一面에僅히三個所의公立普通校가잇슴은遺憾임으로私立學校設立의緊急을感하고任憲淳氏外數氏는大田敎育會를組織하고大田面外南面柳川面懷德面各代表者와決議한바敎育에當局의諒解를得하야創立한以來其後經過는頗히好結으로進行되야任員의選擧其他事務를着々整理中이미未久에爲先大田普通學校를借하야一部敎授를實施하랴는바任員은會長宋秉三副會長宋聖淳、評議員長宋秉三、副會長宋憲淳、幹事閔宏植鄭昌謨宋在益李達寧金鍾諸氏라하며只今까지義捐金은僅히三千圓에至하얏다는데芳名과額數는如左하더라

韓基植百六十圓鄭敎鉉百五十圓宋聖淳宋在益朴英來各百圓任翼淳宋憲淳宋在益閔永壽閔應植丁大鉉梁國煥各五十圓鄭起鉉四十圓鄭達朝李晩熙權容九、宋秉三、鄭昌謨、金圓九、金顯炳圭、李琮銖、宋錫圭、柳海璇、安宋宗濂、徐載國、朴正吉、韓德仁、宋哲淳、金濟煥、李達寧、崔永錫、南星均、安在洛各二十圓金鍾聲宋殷用、金永漢、權泰逵、孫光瑞、金泰五各十五圓洪健植池永禎、劉競烈、宋暾和、宋錫祐、嚴鍾振、沈相鎬、朴用鉉、金永煥、劉性烈、宋箕憲、權錫宋、金濟根、朴允浩、具聖三、金榮衍、韓英寶、梁在河、金益濟、金鍾振、李齊衡、權容禹、尹明化、金鉉基、吳寅泳、宋徽用、白南植、李鳳周、閔泳玧、姜漢、吳寅泳、朴泰赫、金昌圭、南熙台、南明植各十圓(十圓以下四百名金千二百餘圓)(大田)

淸州勞働組合設立

淸州勞働者의團結이無함을遺憾으로하야金鍾玉君의發起로勞働者의向上을圖키不能함으로勞働契를設立하얏스나此로써는組合으로改稱하고本月一日에臨時會長李亨載氏司會下에金晩基氏方에서創立總會를開하얏는바金鍾玉氏의趣旨說明이有한後規則을通過하고任員을選擧하니左記諸氏가被選되얏스며組合員一人에一口金拾圓으로組合金은一口金拾錢으로하야總額一千圓으로하고目的은組合員의人格向上과相互扶助며時々集會를開하야組合員의知識을啓發하며勤儉貯蓄等을實施하야組合의發展을圖하기로하고勞働者의向上을期한다더라

組合長金晩基副組合長李亨載總務金顯澤申亮均李鍾五李公雨評議員崔浩承金弘均金榮俊趙炳然金應先羅相鳳白南斗金聖鉉南甲祚閔金英柚金發熙元光漢徐昌鉉閔泳說李東淇丁彥赫幹事高永達金光玉朱泰鐵朴元二書記金鍾玉(淸州)

木工同業者의友誼

仁川府柳町一番地三十三號에居住하든崔敬五君은四團無親한當地에서木工業으로家族四人이僅々生活하든中不幸히數月前부터病魔에罹하야治療에苦心하다가去三日에死亡한바前記二人外에趙聖文李順熙車興善李順吉等四人이盡力救助하더니畢竟去三日에死亡한故로前記二人外에趙聖文李順熙諸君이合力하야理葬及遺族을救濟하기로하얏슴으로同業者間에友誼가篤함에感動된鄰近有志의同情金이一百數十圓에達하얏는데金額과姓名은如左

李順吉十三圓劉君甫十圓張元植八圓車興善趙聖文李順熙金鑿鍾各七圓劉君星材木店員一同朴雲瑞各五圓崔聖云李仁順各四圓李鍾卄三圓五十錢姜相熙黃鎬路金興元車仁成各三圓式張世京高珠鎔沈能德張先淳金昌順崔順五沈允弼鄭順澤各二圓李興吉一圓五十錢朴錫淳黃鳳龍金根成金昌秀金鎭賀李敬三尹儀先崔元興全鎭元劉興玉鄭召史李在元林相玉姜致重各一圓金樂元六十錢閔有植五十錢李中秀白米一叺(仁川)

李基世一行의好意

六月二日兩日夜新派劇李基世君一行은群山公會堂에서興行한바劇場의入場料除外한純益金을得하야其中實費를除한外에는全部同幼稚園에寄附하얏다더라(群山)

猪島人民의不平

永興猪島牡蠣事件은本報에累次報道한바이니와日本四十五議會에外지某議員의質問의矢가된바이라猪島地元住民代表尹周姬氏는日前元山開港紀念式에來臨한齋藤總督을訪問하고陳情코저하얏스나마참總督은事故에依하야面會치못하고總督代理로伊藤秘書官을訪問하고當局의不公正한處置를質問함에同秘書官은例의官僚式으로徹底한確答을하지아니하얏슴으로一般은大不平中에在하다더라(永興)

長箭聯合運動會

江原道高城郡長箭港에서는去五月卅一日長箭協成靑年會員一百餘名과同港普通學校生徒二百餘名聯合春季運動會가開催되얏는데會長李東燦氏의開會辭가有한後引續競技에入하야七十餘種의競技를畢하고午後六時頃에散會한後同夜에는茶菓會가亦有하얏다더라(高城)

開城北面大運動會

開城郡北面에서는去月三十一日同面事務所主催로加士尾里梁山廣場에서面內普通學校聯合運動會를開催하얏는데生徒二百五十餘名이午前八時全部會集하야會長

鶴橋驛汽車博覽盛況

去五月二十九日午前九時부터咸平郡鶴橋驛에開催된汽車博覽會는隣郡邑人士外지多數會集하야盛況을呈하고午後四時頃에散會하얏다더라(咸平)

白馬公普運動會

義州白馬公立普通學校敎員及學父兄諸氏의發起로去五月三十一日春季大運動會를開催하얏는데當日早朝부터雲集한觀客은三千餘名에達하야大盛況을成하얏다定刻이되매校長朴宗杰氏의開會辭가有한後順序를따라男女三百名學生等의活潑한氣像으로四十種競技를快活히進行함은一般觀覽人의게만흔興奮을起하고午後七時三十分에散會하얏다더라(白馬)

宜川女子夜學進級

宜川郡女子夜學校는原來女子界에名望이高한姜基一金剛石金信顯等諸女史의熱誠으로設立된바數年에漸次發展되는바本月二日下午八時三十分에進級式을擧行하얏는대校長金剛石女史의司會下에讚頌祈禱式辭校歌를了하고進級生朴元山女史의男女同等은文明基礎란題의演說과姜基一嬢의同校歷史談이有한바參席者의게多大한感想을與하얏고校長의證明에對하야今日女子는昔時女子보다責任이重大하다는意味로深切한勸論가有하얏스며生徒一同이進級歌를合唱한後來賓中梁成河李永漢兩氏의懇切한祝辭가有하고進級生曹順愛의答辭가了하자三章讚頌又는徐相賢牧師의祝禱로閉式하얏는데進級生은四年級에崔信賢等六人三年級에崔敬信等十五人二年級에金元敬等十九人(宜川)

南川脚戲運動盛況

京義線南川驛前市民의主催로天中佳節을利用하야脚戲運動을開하고三日間繼續進行하얏는데脚戲外에는朝鮮俗樂及俳優의雜戲等으로盛況裡에閉會하얏다더라(南川)

永興端午脚戲會

永興市民의發起로例年과갓치端陽節을下하야南山公園에脚戲를開한다함은이미報道한바어니와當日은조흔天氣이엇다紅白揮帳及大蓆을친來賓席을爲始하야衛生施設迎接任員休憩所가羅列하얏고寄附와賞品은場內에排置되얏다第一日의마라손은一等은咸南一流의健兒韓永楨君에게라가고第一日脚戲에는十餘年間掠土重來의勞로一等外月桂冠을얏던張자게戟지가壯力을揮하야一敗塗地하야不運의苦境에陷하얏고第二日脚戲에는脚戲界에能名이잇든咸興鄭君이一等을得하얏다더라(永興)

三一敎會堂落成式

釜山金景을俯瞰할만한草梁洞烽火里山麓에宏壯한煉瓦建物이半空에聳立하야釜山에一美觀을添케함은아니라時々로울리는鍾聲은萬人을罪惡中에서救出하야永生의眞理를得케할鍾聲과如하도다此新建築物은即三一敎會堂이라同敎會堂의元名은瀛州洞敎會堂인바敎會堂이狹隘하야多數한敎人을收容할수업슴뿐아니라所謂大釜山에서卄除年歷史가有한敎會가아직蕁態를未免함을甚히遺憾으로思하던同敎會牧師鄭徳生勸事全鐸準愼商翼尹顯泰諸氏가크리스도徒의特別後援을得하야執事勸誠活動한結果寄付金이一萬四千

釜山鎭少年音樂會

本月四日午後八時부터本社支局

各地靑年團體

城德靑年會組織

江陵德城面幼山里에서는靑年有志諸氏의發起로客月二十四日幼興書堂內에城德靑年會發起會를開하고臨時會長曹圭常氏의開會로有한後出席會員三十餘名이入會하고進行方針을討議한後左記와如히任員選定이되얏다더라

會長曹圭常總務崔在浩書記曹昇煥金振鍚會計崔萬吉文藝部長權寧鍚財務部長金弘植正文部長曹宗煥慈善部長高濟萬(江陵)

公州靑年會講演會

去三日午後八時公州靑年修養會育部主催로當地錦江館에서講演會를開催하얏는대聽衆이約五百名에達하얏다會長柳瑞熙氏의司會下에朱炳乾君은「道徳上新主張」이란演題와李卯默君은「우리社會의要求」란演題下에各其熱辯을試하야滿場의歡迎을受하얏다더라(公州)

三南蹴球大會成績

全州湖南靑年會主催로群山靑年會와如히本月三日午後三時부터發勇軍龜岩里船舶間의競技를開하얏는데其중井邑靑年軍과群山井邑軍의決勝戰은勝利가井邑軍에歸하얏다더라(群山)

葭次面事件과

關係官廳의辯明

去月二十一日本紙第三面記事中「少數로多數를犧牲」이란題下에平南江西郡葭次面三里와大同郡古平面長光里境界되는無名川河川敷地使用을平南道廳에서大東同志會所謂幹部金鎭泳外一名의게許可한結果關係地主間에紛紜이生한報道와其翌日에此에對하야論評을試한「平南知事失政」이란下의社說에對하야關係官廳으로左의辯明과取消請求가有하기其全文을揭載함

管內江西郡葭次面三里와大同郡古平面長光里境界되는無名川河川敷地使用許可者와關係地主間의關係에關하야去五月二十三日東亞日報紙上論說欄에本道의處置를批判하얏스나同紙의論은甚히誤解함이라因한것인데事實을闡明하야公明正大한지라行政의要는至公至平하야에在한故로茲에其顚末을述하야

되지라別노히佩劍撤銃의警官으로外威脅恐喝云々이라함과如한事實은絶對로니무하고無稽의流說을輕信하고誇大하게民衆에게統治의眞意를疑心케하는것은甚히社會警察의使命을惑하는者ㅣ라도當局의責務임으로茲에記事取消를要求함 不安南

道 東亞日報社 御中

五月二十一日發行東亞日報第三面第五六段의記事中「少數로多數를犧牲」이라題한雜報記事及翌二十三日發行第一面社說「平南知事의失政」이라題한記事에記하얏스나水源貯溜池의人民이材料를本으로揭載된것인바此에相違가有한지라水利關係者의一人民이務調의途次環銃을擁한事는有하나警察官이赴劍으로外脅迫한事는無하며當時警察官外執한措置는至公至平입을不拘하고事實을誤하야外界를平南知事에及케하고失政이라論하며一般民衆에疑惑을惹케하야考함으로조急此全文을訂正하기를爲하야本旨도아닐것이라雜誌의本旨도아닐것이思한바에取消하시기를茲에請求하나이다 大同警察署長 東亞日報社長殿

河川敷地의占用을必要가有하도다許可하라면許可할은金泰鎭外一名에게許可한것은昨年十二月二十日에出願의目的은現地의四個所를出地에通하야道에許可하얏다하는것인대其後細細히調査하야前次의條件을附하야許可하얏다

一、出願地의兩側에沿하야適當한用水路를設하야附近의灌漑地에不便을及케하지아니할것

二、從來本河川을飲用하는民家의便益을計하야二個所의出張所를設할것

如斯히調査한結果出願地兩側의灌漑用水에支障이업게하고其許可에當하야는特別히注意를加하얏스나不幸히此에關係하는地主에서用水引込의不便을是非하야非道를訴하고許可條件에違反하야出願者에對하야附近汎濫을惹起하얏는지라

其後上下流에在한堤防을敷設할것과如한條件에違反하는事實이有하면又는附近의汎濫을惹起하야被害가有할때에는許可를取消할것인바此의許可條件에在한지라出願人이現地의關係地主와協議하야其條件을附하야許可하고又關係地主의게도充分了解케한後에許可한다고諭하고又는直接으로하야前記의條件으로許可를得한事며其後도不能에困하야不便을生하는境遇에는直히官廳의處理에委하라고懇示하얏다

利에不便을生하는境遇에는直히官廳에申告할이可하다고說明하야地方農民도此에諒解하얏스나其後에도隨時現地를視察하야萬無遺漏케하기爲하야吏員을出張케하야萬無遺漏케하기

主催 定州靑年會

平北第一回庭球大會

日時 六月十七、十八日

場所 定州公普運動場

申込所 定州靑年會

申込期 六月十四日까지

參加團體 各五組式

(參加金十圓)

後援 東亞日報定州支局

夏節緊用蚊帳雜貨

唐紗 漢陽紗 生綃蚊帳 廣綃蚊帳 網紗蚊帳 木枕 各種 帽子 褥席 方席 補件 紗具 花紋三 草席

京城南大門通一丁目二百十二番地 南昌商店 金汝完

物品精密 價額割引은 本商會에 特色

金銀美術

特製販賣

潤光商會

京城南大門通一丁目一二七

고무靴

輕便靴 便利靴

開城北本町四〇八番地

特約店募集함

半島靴店

洋服實習生募集

仁川府町八番地

半島洋服實習所

貿易商 三富益社

營業科目 原鹽、石炭、綿布直輸入 精白米、繩、叺、直輸出

本店 鹽業部 仁川花房町二丁目十一番地

支店所在地 支那青島

急告

華山屋

主 權學洙

營業科目

中央信託株式會社

京城府公平洞六十八番地

取締役社長 李承駿

專務取締役 成普永

麝香靈神丸

世一洋行藥種部

京城府嘉會洞百十一番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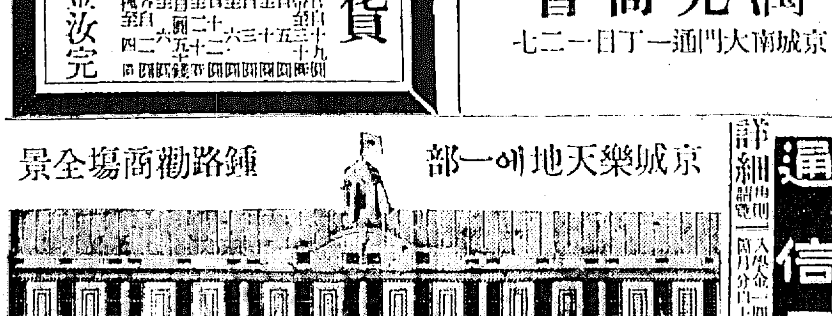
朝鮮文通信中學講義錄

第五回第五號

朝鮮通信中學館

京城樂天地에一部

鍾路勸商場全景



娛樂과利益과便利와社會奉仕의

鍾路勸商場

六月十日一部開場

놀나오십시오

第二回賣店募集

建築中의賣店御希望하시난분은至急來談하시오

勸商場事務所

(電話四十四番)

汽車 [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